



배포 일시	2022. 11. 3.(목)		
담당 부서 (총괄)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 (044-201-3817) 팀 장 이경수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 (044-201-4756) 사무관 성경림 (044-201-381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**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로,
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.**
- 택시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심야 교통편의 제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10월 4일 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”을 발표했으며, 다양한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.
 - 특히, 단기과제인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(업체별, 10.28~11.3),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·운영(10.26) 등을 추진하였으며,
 - 제도개선이 필요한 택시부제 해제 등은 「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」 행정예고(10.31)·입법예고(11.1)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.
- 그동안 준비한 대책들은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되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심야 탄력 호출료(중개택시 최대 4천원, 가맹택시 최대 5천원)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늘(11.3) 밤 10시부터 적용되며, 반반택시(10.28), 타타·티머니(11.1) 등은 이미 출시되었다.
 - 중개 호출료의 80~90%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*되며, 이를 통해 택시 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,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배분방식(예): 호출료를 지불하면 사전에 등록된 기사계좌에 자동으로 입금
 - 호출료가 부과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여 승객들은 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고,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.

- 탄력 호출료와 함께 플랫폼 업체별로 **프로모션·인센티브***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플랫폼 택시시장의 **건전한 경쟁체계가**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예) 티머니: 승객을 대신하여 호출료 전액을 기사에게 지급(~11월)

- ② **부제 해제**와 관련해서는 행정규칙(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) 개정안이 시행(11.22^{예정})되면, **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** 발생하는 지역은 부제가 해제된다. 한편, 서울시는 택시난의 **조속한 해결**을 위해,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**택시부제를 조속 해제**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- ③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하여 **협의(10.26)**한 것을 계기로, 서울 개인택시 **심야 운행조** 운영이 시작되었다.

- 심야 운행조와 함께 11월 3일을 기점으로 **심야 탄력 호출료**가 본격 출시되고, 이후 **부제 전면 해제**까지 시행되면 **택시 공급력**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④ 아울러, 심야시간 **주취승객** 등의 **폭행·협박**은 택시기사의 **운행**을 기피하게 만들고 **교통사고의 위험성**도 높아지므로, 기사 **폭행·협박** 등에 대해서는 **경찰청과 협조**하여 **엄정 대응***할 계획이다.

*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(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)

- 택시기사의 심야 안전운행 등을 위해 **승객들의 협조**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**폭행예방** 등을 위한 **안전 홍보물(교통안전공단)**을 서울택시 1만대에 부착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**연말까지** 택시대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**심야 운행조, 탄력 호출료, 부제 해제** 등을 적극 추진·지원하고,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지속 **모니터링**하면서 데이터를 통해 **정책성과**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국민의 **이동편의**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, 심야 택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**플랫폼운송사업^{Type1}**(과거 타다·우버를 제도화한 유형)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.